

캐주얼해진 '명랑골프' 좋지만, 룰·에티켓은 지켜야

강찬욱 시대의 시선 대표

지난 2년만골프인구가 급증한 적이 있을까. "너 골프하니?"라는 질문은 이제 "너 골프하지?"로 바뀌어가는 상황이다. 거리엔 골프웨어 가게가 줄지어 있고 TV를 틀면 그 어느 때보다 골프 관련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골프가 가장 넘쳐나는 곳은 SNS다. 아주 오래전엔 골프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적도 있었다. '과장 주제에 무슨 골프냐' '나도 어 린데 웬 골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다. 물론 요즘은 골프를 한다는 사실을 사방팔방에 알리는 추세다. MZ세대들의 SNS를 보면, 맛집이나 여행 지 정보를 올리듯 골프 관련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

SNS의 해시태그를 보면 세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는 '골린이', 둘째는 '명랑골프', 셋째는 '골프에 진심인 편'이다. 개인적으로 골린이라는 표현은 두손을 들어 환영할 만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초보나 초짜라는 말에 비해 얼마나 문학적이고 어 감이 짙은지. 명랑골프와 골프에 진심인 편이라는 표현은 다른 뜻 같은 말이다. 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명랑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 공유 시대

명랑골프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명랑'이란 말은 무엇인가? '호호호' '깔깔 깔'이 생각나지 않는가? 오래전 소년만화 잡지엔 명랑만화라는 카테고리 있었다. 말 그대로 웃고 즐기는 만화라는 의미였다. 재기와 농담이 넘치는 웃음을 유발하는 만화였다. 진지하거나 심각하지 않고 웃어넘기는 만화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물론 어감상으로는 가볍게 히히덕거리는 만화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를 창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골프를 시작하고 라운드를 하게 되면 매년 만나는 다른 분위기의 동반자에 놀라게 된다. 같은 사람이 없듯이 같은 동반자는 없다. 지나치게 스코어에 집착하고 숨이 막힐 듯 엄격한 동반자들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적당히 룰을 뭉개버리면 골

MZ세대 '골린이' 늘어 분위기 변화

멋진 골프웨어, 시끄러운 하우스

'좋은 게 좋은 거지' 룰 뭉개기도

골프는 승부 겨루는 명백한 스포츠

진지하게 임해야 재미·기쁨 더 커



#골린이

프의 본질을 망각한 무식한 인간으로 취급당하기 쉽다. 반면 해도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명랑하기만 한 동반자들도 있다. 룰은 골프장에 오기 전 진입로에 훌훌 던져버리고, 에티켓은 라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다 내려놓은 듯 그저 재미로만 골프를 하는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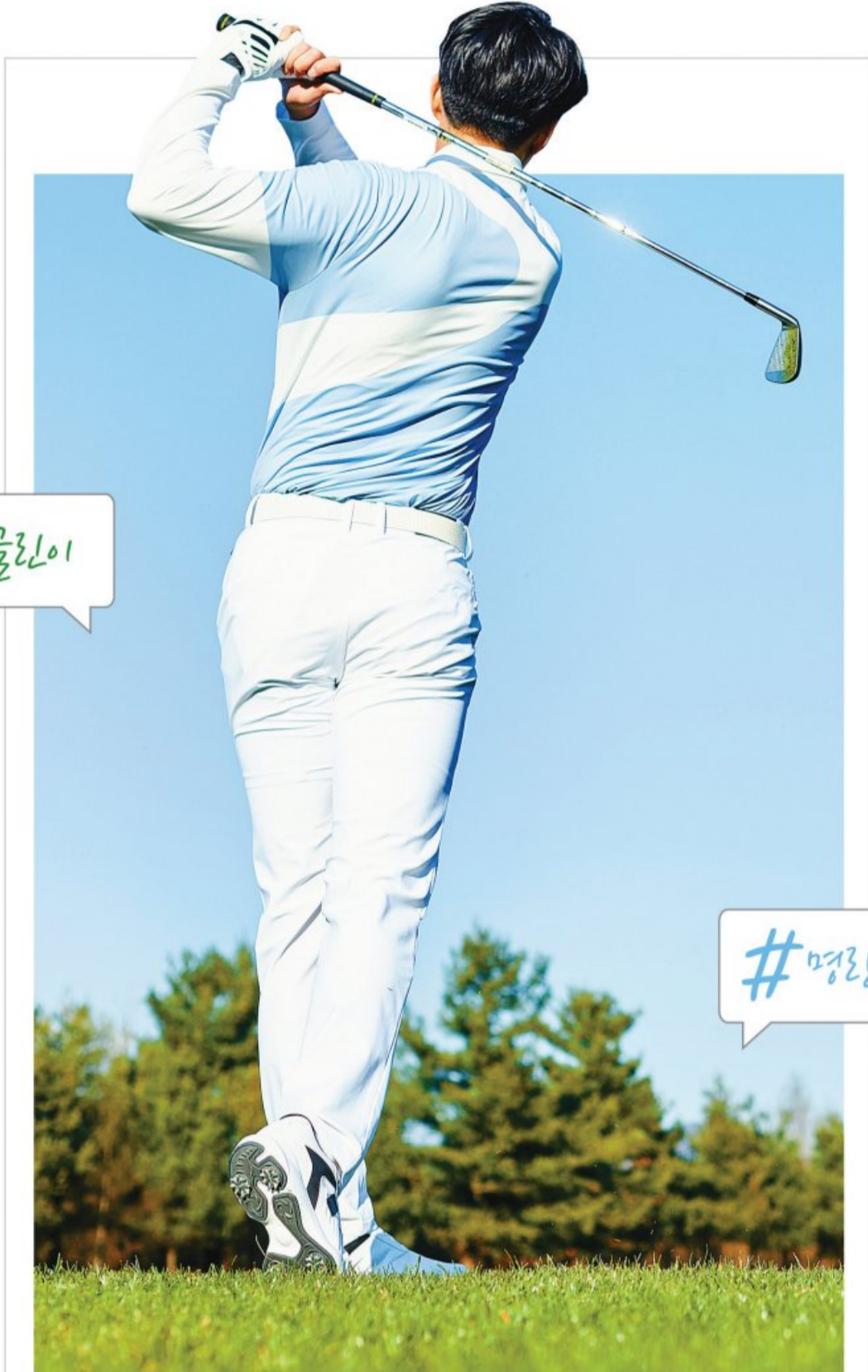
이럴 때마다 혼동이 된다. 나는 어떤 골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팀마다 다르지. 팀 분위기에 맞춰야지.' 하지만 그게 쉬운가.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한 골린이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 분명 지난주의 동반자들은 '절대 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의 골프는 '좋은데 놓고 쳐'가 됐다. 이것은 같은 골프가 아니다. 무엇보다 골프를 대하는 같은 마음이 아니다.

필자는 골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엄격한 것에 반대한다. 어느 의류 브랜드의 광고 카피 중에 '인생을 캐주얼하게'라는 말이 있었다. 골프도 과거에 비해 좀 더 캐주얼 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아니 적극 지지한다. 실제로 골퍼들의 의상이 얼마나 격식을 벗어던졌는가. 공수부대의 점프수트를

응용해서 만든 골프웨어가 인기 있는 상황이니 이미 골프는 많이 캐주얼해졌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고 오늘의 골프가 그렇게 만들었다.

과거엔 소수들이 공유하는 골프였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대다.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페어웨이는 런어웨이다. 멋지게 차려입은 골퍼들의 페

◀필드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사진 인스타그램)



#명랑골프



땀 흘리고 진지한 곳에 골프의 기쁨이 있다. 지킬 것은 지키는 게 명랑골프다.

선조상이다. 다른 골퍼들의 필드에서의 사진과 영상을 보는 즐거움도 분명 골프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명랑골프는 분명 골프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명랑골프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어떤 골퍼는 과거에 비해 클럽하우스 식당이나 스타트 하우스가 시끄러워졌다고 이

야기 한다. 또 동반자의 샷에 리액션하는 볼륨도 과거에 비해 커져서 좀 어수선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우리의 필드가 다이나믹해지고 즐거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장님만의 전유물이었던 골프가, 우아한 사모님들의 사교의 장이었던 골프가 드디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셈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명랑골프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 골프는 명백한 스포츠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다. 스포츠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승부이며, 겨루기다. 누군가와 싸워 이겨내고 더 잘해내는 과정이다. 프로선수들이 웃으면서 샷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본인의 미스 샷에 깔깔거리는가. 골프 역시 승부에서 이겼을 때 가장 큰 희열이 찾아오는 스포츠다. 혹, 명랑골프가 스포츠로서의 골프를 잊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다른 하나는 룰과 에티켓이다. 필자가 처음 골프를 접했을 때는 '말리건'이란 것이 없었다. 스크린골프가 확산되고, 스크린골프에서 3회의 말리건 사용횟수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말리건 역시 골프의 일부인양 인식하게 됐다. "요즘 일부 골퍼들은 호주머니에 볼을 하나 더 넣고 다니면서 티샷 실수를 하면, 스스로 말리건을 외치고 하나 더 쳐요." 씁쓸하게 다가오는 어느 캐디의 증언이다.

필자는 아버지로부터 골프를 배웠다. 인생 첫 라운드를 한 뒤 두 번째 라운드 때 아버지와 동반 경기를 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우정힐스골프장의 어느 파3였다. 필자가 다섯 번째 샷 만에 볼을 겨우 그린에 올린 뒤 '양파네오'라고 볼을 집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끝까지 훑아웃 하라고 하셨다. 결국 그 홀에서 기준 타수보다 6타를 더 치는 9자를 그리고 말았다. 물론 스코어카드에도 그렇게 적혔다. 당시엔 아버지가 살짝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내게 골프를 물려주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됐다. 이제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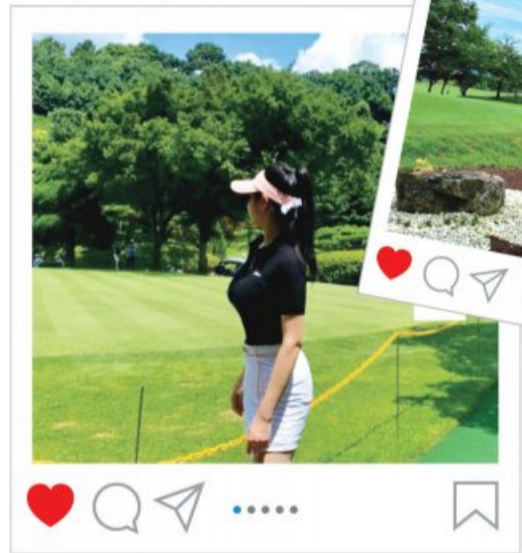
에티켓 어기면 골프의 본질 훼손

요즘 골프를 시작한 골린이들을 보면 친구 또는 또래와 라운드를 가는 일이 흔해졌다. 4명 중에 2명이 인생 첫 라운드이며, 나머지 2명의 구력도 몇 달 채 되지 않은 골퍼들의 조합이 많아졌다. 그만큼 인생 첫 라운드니까, 잘 하지 못할 거니까, 프로님과 3명이 가는 일은 이제 유행과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 하지만 골린이는 골프를 배우야 하는 골퍼다. 누구에게 배우겠는가? 같은 골린이에게 배우겠는가. 직장처럼 선배들에게 배우는 것이다. 골린이의 라운드에 구력이 되는 골퍼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호건랩'과 '니코보코바지'의 대명사로 지금은 고인이 된 페인 슈투어트(미국)는 '나쁜 스윙 보다 더 나쁜 것은 나쁜 태도'라는 말을 남겼다.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톰 카이트(미국)는 '훈련과 집중이 골프의 재미'라고 이야기했다. 골프에 임하는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골프를 만든다는 뜻일 것이다.

웃고 즐기는 것만큼이나 집중하고 땀 흘리고 진지한 곳에 골프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힘든 상황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조차 받아들일 줄 알아야 완전한 골프를 온전히 누울 수 있게 된다. 물론 라운드를 하는 몇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것은 모든 골퍼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그냥 명랑골프가 아니다. 지킬 것은 지키는 명랑골프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